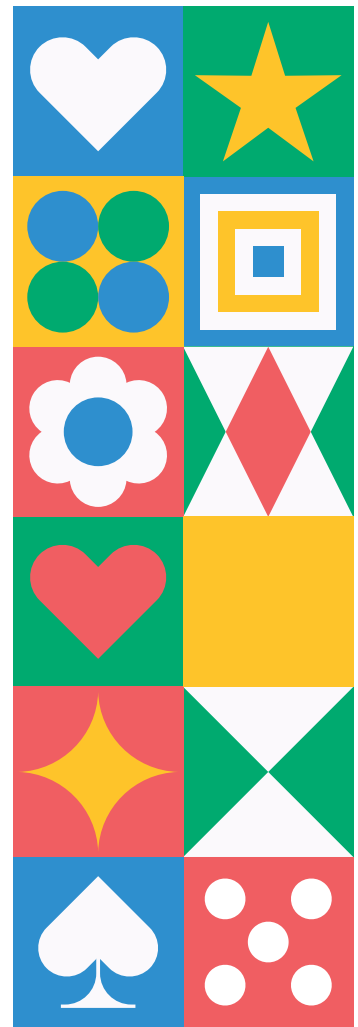


2025

서울마이칼리지 운영성과집



한 해를 책처럼 읽는,
대학과 시민의 성장 스토리

대학의 지식과 시민의 배움이 만나, 하나의 이야기가 되다

어떤 질문은 작고 조용해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 삶이 익숙해질수록 낯선 길로 들어서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망설입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그 망설임 곁에 서서, 배움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합니다. 거창한 결심 대신 한 번의 참여와 한 번의 경험이 다음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운영성과집은 한 해의 성과를 단정한 결론으로 묶기보다,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질문이 생기고, 기획이 움직이고, 준비가 쌓여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를 따라갑니다.

서울 곳곳의 대학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문을 엽니다. 손으로 익히며 기술이 몸에 남는 배움이 있고, 만들고 완성하며 결과물로 자라는 배움이 있으며, 경험을 정리해 다음 선택의 윤곽을 그려주는 배움도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배움은 책상 위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현장에서, 사람 사이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꿈을 다시 꺼내며, 누군가는 자신의 가능성을 새로 확인합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다 담기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집은 남깁니다. 배움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자신감이 되어 다음 선택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을.

이제 책장을 펼칩니다. 배움은 흐르고, 질문은 또 다른 시작을 만듭니다.

CONTENTS



프롤로그	대학의 지식과 시민의 배움이 만나 하나의 이야기가 되다	00
CHAPTER 0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00
	서울마이칼리지 개요	00
	참여대학 안내	00
	2025 연간 운영흐름(타임라인)	00
CHAPTER 02.	대학별 프로그램 소개	00
CHAPTER 03.	서울마이칼리지 성과	00
	인문·교양으로 확장된 배움: 구독대학	00
	네트워킹 기록 - 기관장 간담회	00
	실무자 브릿지데이(Bridge Day)	00
	대학평생교육포럼	00
	대학과 시민이 함께 만든 변화의 메시지	00
CHAPTER 04.	산학연계·기업·기관 협력 방향	00
에필로그	다음 챕터를 향하다	00

서울마이칼리지 2025
운영성과집

배움은 흐르고,
질문은 또 다른 시작을
만든다.

CHAPTER. 1

시작

어린 왕자처럼
다시 묻는다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서울마이칼리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추진 배경

중장년 시민은 퇴직, 직무 변화, 돌봄 등 전환기를 지나며 새로운 진로와 역할을 모색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해보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학습 기회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도구와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일과 생활 전반에서 기본 역량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시민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료·인증·연계의 흐름을 갖춘 운영 구조로 설계합니다.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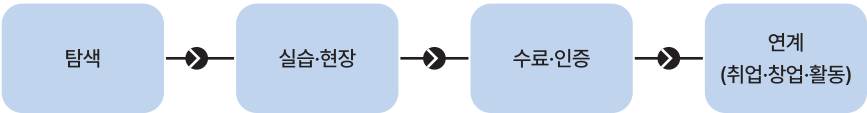
중장년 시민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확대합니다. 현장적용 중심 교육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생활에 활용가능한 기술과 지식을 확장합니다. 대학별 강점을 반영한 과정 운영으로 서울형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고도화합니다. 대면과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참여 문턱을 낮추고 학습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수료, 인증, 연계 체계를 정교화해 학습이 이후 경로로 이어지도록 연결 구조를 강화합니다.

서울마이칼리지 개요



대학이 배움의 터전이 되어, 중장년 시민의 직업 탐색과 역량 강화를 돕는 서울형 평생직업교육입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움이 '경험'에서 '다음 경로'로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공모로 운영대학을 선정하고, 대면 및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학습 접근성을 넓힙니다.

배움은 흐릅니다.



2025 운영 키워드 (TIP)

2025년에는 대학 협력 방향을 TIP으로 정리해 운영합니다.

- Talent Development Project: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실무 역량 강화
-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 최신 기술 이해와 실습 중심 학습
- Problem Solving Project: 지역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함께 설계

서울마이칼리지 통합 체계를 명확히 하고, 대학 단독 참여로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2025 운영 개요	
• 사업명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
• 사업기간	2025년 3월~12월
• 사업대상	서울시민(생활권자 포함)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운영대학(기관) 선정
• 사업내용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역량강화 과정 개발·운영
• 운영방법	대면(오프라인),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병행
• 학습 인증	특성화형 수료증 발급, 인증형 Micro-Degree 발급(선수학점 인정 방식 추진)
• 추진실적	17개 대학 182개 강좌(771회) 운영, 참여자 4,524명

참여대학 안내

서울 전역 17개 대학, 생활권에서 시작하는 배움

서울마이칼리지는 “배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다시 묻고, 시민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17개 대학과 함께 운영합니다.

가까운 시작: 배움이 먼 목적지가 되지 않도록, 서울 곳곳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다양한 선택: 한 대학이 다 담기 어려운 주제와 방식은 대학별 강점으로 채워 선택지를 넓힙니다.
연결의 가치: 시민의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에 맞는 대학과 과정을 만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참여대학 17개교

- | | |
|-----------|------------|
| 1 경기대학교 | 10 인덕대학교 |
| 2 동국대학교 | 11 총신대학교 |
| 3 동양미래대학교 | 12 한양대학교 |
| 4 배화여자대학교 | 13 한양여자대학교 |
| 5 삼육대학교 | 14 명지대학교 |
| 6 서울교육대학교 | 15 명지전문대학 |
| 7 서울여자대학교 | 16 서울시립대학교 |
| 8 서일대학교 | 17 성신여자대학교 |
| 9 세종대학교 | |



2025 연간 운영흐름

- | | |
|-----|---|
| 3월 |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 사업 공고, 사업설명회, 운영 계획 수립 |
| 4월 | 공모 선정 결과 안내,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오리엔테이션 운영 |
| 5월 | 서울마이칼리지 사업 운영, 효과성 측정 조사 및 분석 연구 착수 |
| 6월 | 서울마이칼리지 구독대학 운영 |
| 7월 | 서울평생학습포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8월 | 기관장 간담회 운영 |
| 9월 | 대학 실무자 브릿지데이 운영 |
| 10월 | 평생학습 작은 세미나 운영 |
| 11월 | 대학평생교육포럼 개최, 태재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효과성 측정 조사 및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 12월 | 성과 정리 및 결과보고, 2026년 사업 확대 자문회의 개최 |

대학연계에서 서울마이칼리지까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부터 시민이 생활권에서 대학의 우수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41개 대학과 협력해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서울마이칼리지’로 개편해 중장년 시민의 직업 탐색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2025년에는 공모 기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통합 운영체계를 정비해 참여 흐름과 성과관리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참여대학 17개교

- 2013~2021: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일반대학 중심, 인문교양교육 위주
- 2022: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시범 도입 직무 재교육·직업교육 요소 일부 반영
- 2023: ‘커리어 점프업’ 공모사업 운영 일반대학 중심, 직무역량 강화형 과정 확대
- 2024: ‘챌린지업’ 신설 + 전문대학 참여 브랜드 통합 → 서울마이칼리지 출범 특성화형·인증형 사업구조 마련
- 2025: 사업 체계 정비, 대학 단독 참여 방식 통일, 통합운영 본격화

업무협약 대학

연도	대학명	개소
2013년	성공회대, 이화여대, 경희대(6.20.)	3개교
2014년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7.21.)	6개교
2015년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7.20.)	5개교
2016년	광운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한성대, 강서대(구KC대)(9.2.)	9개교
2017년	국민대, 동덕여대, 명지대, 세종대, 총신대(11.28.)	5개교
2020년	삼육대(2.20.), 서울여대(2.11.)	2개교
2023년	성신여대(12.6.)	1개교
2024년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영여대(9.2.)	9개교
2025년	태재대(11.17.)	1개교
합계		41개교



“On ne voit bien qu’avec le cœur. L’essentiel est invisible pour les yeux.”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가 남긴 이 말처럼, 서울마이칼리지는 ‘드러난 성과’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자라난 변화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시민의 작은 질문이 참여가 되고, 경험이 쌓여 다음 선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서울 곳곳의 대학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Antoine de Saint-Exupéry, The Little Prince

17개 대학이 만든
길 위에서 새로운
배움이 열렸다.

CHAPTER. 2

확장



오즈의 마법사처럼
길 위의 배움을
따라가다

서울 17개 대학이 만든 길

대학별 대표 프로그램을 따라가며, 배움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운영 포인트와 핵심 성과지표로,
배움이 현장에서 자라는 장면을 담습니다.



연번	유형	대학(기관)	사업명
1	특성화형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니어 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2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 공모사업
3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	베이비 부머 은퇴자를 위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과정
4		배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문화유산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 창조사업
5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
6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서울마이칼리지 동국 열린 커리어 랩
7		한양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라이프 업 v2.0
8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장년 맞춤형 문화 산업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넥스트 워크
9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장년의 직업 역량 및 미래 변화 적응을 위한 SU-HOPE 아카데미
10		한양대학교 (미래문화융합연구센터)	중장년의 인생 2막, 커리어 역량 강화-UP
11	인증형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장년을 위한 TIP 점프업 직업역량 전문가 과정
12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G밸리 자율제조 지원을 위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사업
13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AI 컬러 라이프 아카데미
14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장년을 위한 향기테라피 커리어 UP 아카데미
15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서울 시민을 위한 'MJ 커리어 업 칼리지'
16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명지와 함께하는 Value Up
17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2025 중장년을 위한 세무·회계·데이터분석 Skill-up

1. 경기대학교

과정명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위한 관광종사원자격증 대비반
핵심주제	국가자격으로 여는 인생 2막, 현장에서 완성하는 관광 실전 교육
내용	경기대학교는 은퇴 이후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 종사원 국가자격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광학개론 등 정규 과정을 통해 필기 핵심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한양도성길과 서울 관광 해설, 면접 전략 등 현장형 특강을 연계해 학습이 실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합니다. 밴드 운영으로 수업 자료와 준비 과정을 공유하며 학습 지속을 지원하고, 관광 사업체 정보를 함께 공유해 자격 취득 이후의 취업과 창업 정보까지 함께 공유해 다음 선택을 돕습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8	48	147 시간	211 명	67.7%	4.7 (5점)



2. 동국대학교

과정명	동국열린커리어랩
핵심주제	디지털 창작과 창업 실무를 한 흐름으로 익히는, 중장년 맞춤 커리어 전환 실전 과정
내용	동국대학교는 청년과 중장년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 창작과 창업 실무를 연결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커머스 창업 실전, 이모티콘 제작, 웹소설 창작, 생성형 AI 활용, AI 활용 3D 모델링과 시제품 제작 등 직접 만들고 완성해 결과물을 남기는 수업으로 구성해 학습이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1대1 컨설팅과 과제 안내, 출결 관리 등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 및 주말 편성으로 재직 중인 시민의 참여 여건을 높입니다. 수업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의 학습 공간과 실습 장비를 개방해, 시민이 대학 환경에서 몰입해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1	23	57 시간	386 명	67.4%	4.3 (5점)



3.

동양미래대학교

과정명	G밸리 메이커스쿨 - G밸리 제조산업 특화 실무인재 양성 사업
핵심주제	장비로 익히고 AI로 확장하는, G밸리 스마트제조 실습형 직무 전환 교육
내용	동양미래대학교는 G밸리 제조 산업 수요에 맞춰 중장년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돕는 스마트제조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전기, 공압, PLC, 서보 제어 등 자동화 핵심을 장비 실습 중심으로 구성해 기술을 직접 익히도록 설계하고, Generative AI 도구 활용과 Teachable Machine 실습을 연계해 디지털 적응력과 현장 적용 역량을 함께 강화합니다. 진로 설계와 취업·창업 연계를 병행해 학습 이후의 선택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2	40	93 시간	128 명	77.3 %	4.6 (5점)



4.

배화여자대학교

과정명	전통문화유산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 창조 사업
핵심주제	만들고 전시하고 해설하는, 전통문화 실습형 교육
내용	배화여자대학교는 한복생활, 전통수공예, 전통차, 전통의례를 생활 속에서 직접 익히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합니다. 침선, 매듭, 자개, 인형한복 등 제작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완성하고, 전통의복, 활옷, 보자기, 전시 도슨트 특강을 연계해 전통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역량까지 함께 키웁니다. 완성한 성과물은 전시와 지역 활동으로 이어지며, 참여자 교류를 통해 취업·창업·진학 등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1	43	128 시간	223 명	91.0 %	4.5 (5점)



5. 삼육대학교

과정명	중장년의 직업역량 및 미래 변화 적응을 위한 SU-HOPE 아카데미
핵심주제	기술과 인문, 생활학습을 엮어 중장년의 배움을 실제 활용으로 이어가는 과정
내용	삼육대학교는 중장년의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주제를 건강, 삶 설계, 생태 전환, 지역 참여로 확장해 통합형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중장년 헬스케어, 웰다잉 강사 자격 과정, 도시농부, 생태전환교육 협력강사 과정을 중심으로 '몸 관리에서 활동 전환'까지 학습 흐름이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에 AI 이해와 활용, 카드 영상 만들기 등 디지털 강좌와 테이핑, 스트레칭, 친환경 삼푸바 만들기 같은 생활 특강을 더해 일상 적용성을 높입니다. 교육 이후에도 참여자 교류가 이어지도록 오프라인 모임과 카톡방을 운영해 학습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또한 외부 기관 연계 집단상담을 통해 진로 고민과 활동 방향을 점검하며, 수료 이후의 선택이 구체화되도록 지원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9	37	74 시간	231 명	93.5 %	4.6 (5점)



6. 서울교육대학교

과정명	4060을 위한 휴마인드 아카데미
핵심주제	기술과 인문, 생활학습을 엮어 중장년의 배움을 실제 활용으로 이어가는 과정
내용	서울교육대학교는 중장년 시민이 AI를 단순히 “써보는 경험”에 그치지 않도록 기술 이해와 함께 윤리, 책임, 편향 등 핵심 쟁점을 함께 다루도록 구성합니다. 이어 그림책 읽기와 생성형 AI 실습을 결합해 참여자가 직접 결과물을 만들고 고치며 자기 방식의 표현으로 완성해보는 흐름을 만듭니다. 배움이 화면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서울 옛길 탐방과 자연생태 과정을 연계해 강의로 맥락을 잡고 현장 활동으로 확장하며, 관찰과 기록이 생활 속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합니다. 기술, 교육, 문화, 생태를 한 경험으로 이어 배움이 일상에서 써보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0	47	125 시간	169 명	69.8 %	4.7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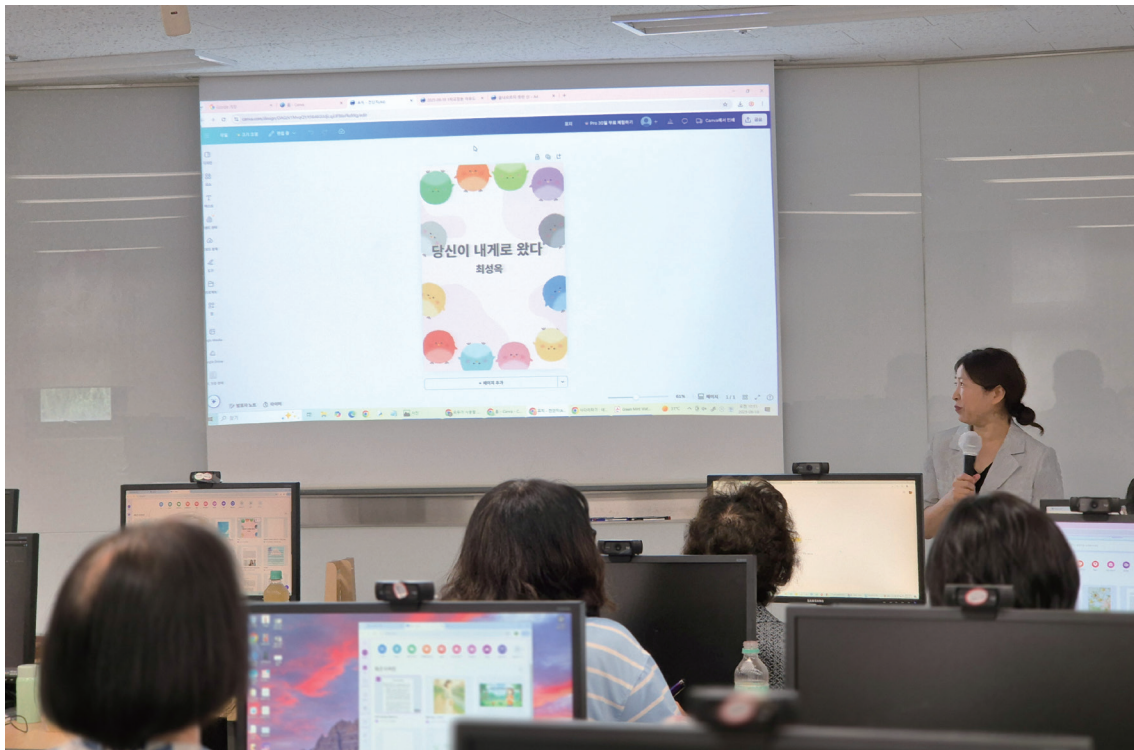
7. 서울여자대학교

과정명 중장년을 위한 TIP 점프업 직업역량 전문가 과정

핵심주제 인문·상담·문화 강좌를 직업역량 관점으로 엮고, AI 활용과 자격·진로 지원까지 연결한 중장년 전환 과정

내용 서울여자대학교는 중장년의 경력 전환 고민에 맞춰 문학심리분석상담, 감정코칭, 창작 일러스트, 서울 문화유산 해설 등 '경험을 전문성으로 바꾸는' 강좌를 운영합니다. 일부 과정에는 AI 활용 실습을 포함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넓힙니다. 인터넷윤리지도사 등은 외부 기관 협약을 통해 자격 취득으로 연계해 학습 성과가 남도록 합니다. 수료 이후에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면접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학 일자리 지원 조직과 연계해 준비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8	61	144 시간	200 명	83.5 %	4.7 (5점)



8. 서일대학교

과정명 서일 우리동네 생활 연구소

핵심주제 생활을 연구하고 바로 써먹는, 실습 중심으로 생활 역량을 넓히는 과정

내용 서일대학교는 요리와 건강 식단, 반려 생활, 디지털 창작 등 생활 주제를 실습 중심으로 구성해 배움이 곧바로 일상 변화로 이어지도록 운영합니다. 야간과 주말 편성을 병행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완성 결과물을 발표와 공유로 연결해 학습 경험이 기록으로 남도록 운영합니다. 희망자에게는 협회 연계 자격 취득 경로를 안내하며, 굿즈 제작 등 결과물 중심 실습을 통해 개인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도록 지원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9	40	80 시간	224 명	94.6 %	4.7 (5점)



9.

세종대학교

과정명	AI Culture Life Academy
핵심주제	AI로 만들고 브랜딩으로 남기는, 컬처 라이프 콘텐츠 제작 교육
내용	세종대학교는 AI 활용 기초부터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푸드와 컬처 분야 과정을 함께 엮어 학습이 취미를 넘어 실천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운영합니다. AI 센터 실습 환경에서 커피, 디저트, 브랜딩 디자인, Generative AI 도구를 직접 다루는 수업을 중심으로 단계화하고 '해보면서 익히는' 몰입을 높이고, 셀프 브랜딩과 콘텐츠 제작 과정을 연계해 개인 포트폴리오가 남도록 수업 흐름을 잡습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9	55	153 시간	193 명	82.9 %	4.7 (5점)



10.

인덕대학교

과정명	Next Work '여행상품상담사 과정'
핵심주제	예약 시스템까지 다루는, 여행상품상담 실무 완성형 과정
내용	인덕대학교는 여행산업 전반의 지식과 실무 역량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여행상품상담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여행사 경영 실무, 세계관광과 문화, 여행상품상담 실무에 더해 항공예약시스템 TOPAS SellConnect 실습을 포함해 현장 업무 흐름을 그대로 경험하도록 구성합니다. AI 기반 여행 콘텐츠 제작 수업을 더해 기획과 홍보 역량까지 넓히고, 일자리센터와 창업교육지원실을 통해 취업-창업 준비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6	50	150 시간	409 명	86.6 %	4.6 (5점)



11. 총신대학교

과정명	시니어 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핵심주제	시니어 돌봄과 노후 설계를 함께 다루고, 인지케어와 에이지테크 실습을 함께 다뤄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시니어 케어 전문 과정
내용	총신대학교는 시니어 돌봄 수요에 대응해 시니어 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과정은 시니어 인지케어 전문가 양성과정과 에이지테크를 적용한 노후설계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구성해, 돌봄 이해와 서비스 설계 역량을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노화 단계별 변화와 욕구 분석, 생활모델 제시 등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다루고, 시뮬레이션 실습과 과제 발표로 적용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시니어 관련 강사, 돌봄 종사자, 시니어 제품과 서비스 기획 희망자 등 다양한 참여 대상을 열어 두고, 실습 이후에는 모의면접 등 연계 지원으로 준비가 이어지도록 운영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9	25	76 시간	333 명	87.1 %	4.6 (5점)



12. 한양대학교

과정명	중장년의 인생 2막, 커리어 역량 강화 UP
핵심주제	중장년의 경력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활용과 콘텐츠 실습, 실행 계획 수립을 한 과정 안에 담은 커리어 재설계 프로그램
내용	한양대학교는 중장년이 은퇴 이후의 방향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실천적 글쓰기 강좌를 통해 변화한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기본 역량을 다지고, 자신의 경험을 강점과 서비스로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시장과 직무 흐름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과제와 피드백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합니다. 이어 인스타그램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실전 과정에서 홍보용 글과 이미지, 콘텐츠 기획을 직접 만들어 보며, 채널 운영 감각을 익히도록 운영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3	56	93 시간	354 명	68.6 %	4.7 (5점)



13.

한양여자대학교

과정명	서울 라이프 업 v2.0(Seoul Life UP v2.0)
핵심주제	돌봄 실무와 AI 활용을 결합해 현장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Life UP 교육
내용	한양여자대학교는 전문 간병인과 다문화 간병인 재교육을 중심으로 현장에 바로 쓰는 돌봄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합니다. 간병인 업체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 내용을 촘촘히 구성해 교육 이후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생성형 AI 과정은 ChatGPT 기반 업무 자동화와 콘텐츠 제작 실습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고급 기능 활용을 위한 ChatGPT Plus 지원을 더해, 1인 가구 식생활 개선을 위한 혼밥 라이프 클래스까지 연계해 직무와 일상에서 체감 성장을 만들도록 구성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6	31	82 시간	396 명	85.9 %	4.7 (5점)



14.

명지대학교

과정명	서울 시민을 위한 MJ 커리어업 칼리지
핵심주제	부동산 정비 실무, 생성형 AI 마케팅, 미술심리치료를 인증형 과정으로 운영해 경력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마이크로디그리로 학습 결과를 남기는 과정
내용	명지대학교는 성인학습자의 이직, 전직, 취업,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과정을 운영합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발 실무 과정은 제도 이해부터 사업 절차, 권리 분석까지 실제 업무 흐름을 따라가며 학습하도록 설계합니다. 생성형 AI 디지털 마케팅 과정은 ChatGPT, Canva 등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연결과 소통을 위한 미술심리치료' 과정은 작업과 나눔을 통해 참여자가 감정과 관계를 안전하게 들여다보고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전 과정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참여 선택지를 넓히며, 수료 및 추가 요건 충족 시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을 발급해 학습 성과를 공식화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8	48	100 시간	245 명	89.0 %	4.5 (5점)



15.

명지전문대학

과정명	명지와 함께 Value Up
핵심주제	뷰티와 패션 실습을 자격 취득과 현장 활용으로 이어가는 중장년 커리어 업 과정
내용	명지전문대학교는 쏘잉디자이너, PCCS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 미용-경락 테라피스트, 패션컨설턴트 과정을 운영해 실습으로 익힌 기술이 바로 서비스와 상담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합니다. 봉제는 생활 소품 제작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컬러와 이미지 과정은 진단과 코디네이션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쓰는 흐름을 익히도록 합니다. 뷰티 테라피 과정은 관리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해 고객 응대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고, 패션컨설턴트 과정은 상품 기획과 판매 기법, 고객 관리까지 다뤄 실무 감각을 키우도록 설계합니다. 추가로 뷰티·패션 ESG 업사이클링 특강을 운영해 한옷 등 재료를 활용한 제작 활동으로 생활 속 실천과 제작 경험을 넓힙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15	45	135시간	300명	100%	4.6 (5점)



16.

서울시립대학교

과정명	중장년을 위한 세무·회계-데이터분석 Skill Up
핵심주제	세무·회계 실무와 데이터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나노디그리 인증을 통해 학습 결과를 남기는 중장년 업스킬 과정
내용	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 회계, 데이터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 과정과 특강을 운영해 중장년 시민의 실무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데이터과학 심화 실습을 포함해 “기초부터 실제 구현까지” 이어지는 학습 흐름을 마련하고, 회계와 세무는 사례 기반 과제와 현장 전문가 특강으로 실무 적용을 강화합니다. 창업, 경제, 면접전략 특강을 함께 운영해 학습이 취업, 전직, 창업 준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퇴근 이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녁 시간대에 편성하고, 성인학습자 친화 운영도 함께 마련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9	71	202시간	202명	74.3%	4.6 (5점)



17.

성신여자대학교

과정명	중장년을 위한 향기테라피 커리어UP 아카데미
핵심주제	조향 실습과 향기테라피 공방 창업까지 단계별로 익히는 중장년 향기 산업 실무 과정
내용	성신여자대학교는 조향사, 향기테라피스트 A-B, 향기공방창업 과정으로 교육을 편성해 중장년이 향료 이해부터 블렌딩, 제품 제작, 창업 기획까지 단계적으로 익히도록 운영합니다. 현업 전문가 특강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과 비즈니스 관점까지 넓히고, 과정별 결과물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멘토링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학습 결과는 마이크로디그리 발급으로 남기며, 실습 과정에서는 시민 대상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재능 나눔 활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수료율	참여자 만족도
9	51	180시간	320명	95.9%	4.6 (5점)



“Follow the Yellow Brick Road.”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노란 벽돌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보다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을 남깁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대학별 프로그램을 따라가며, 배움이 취미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확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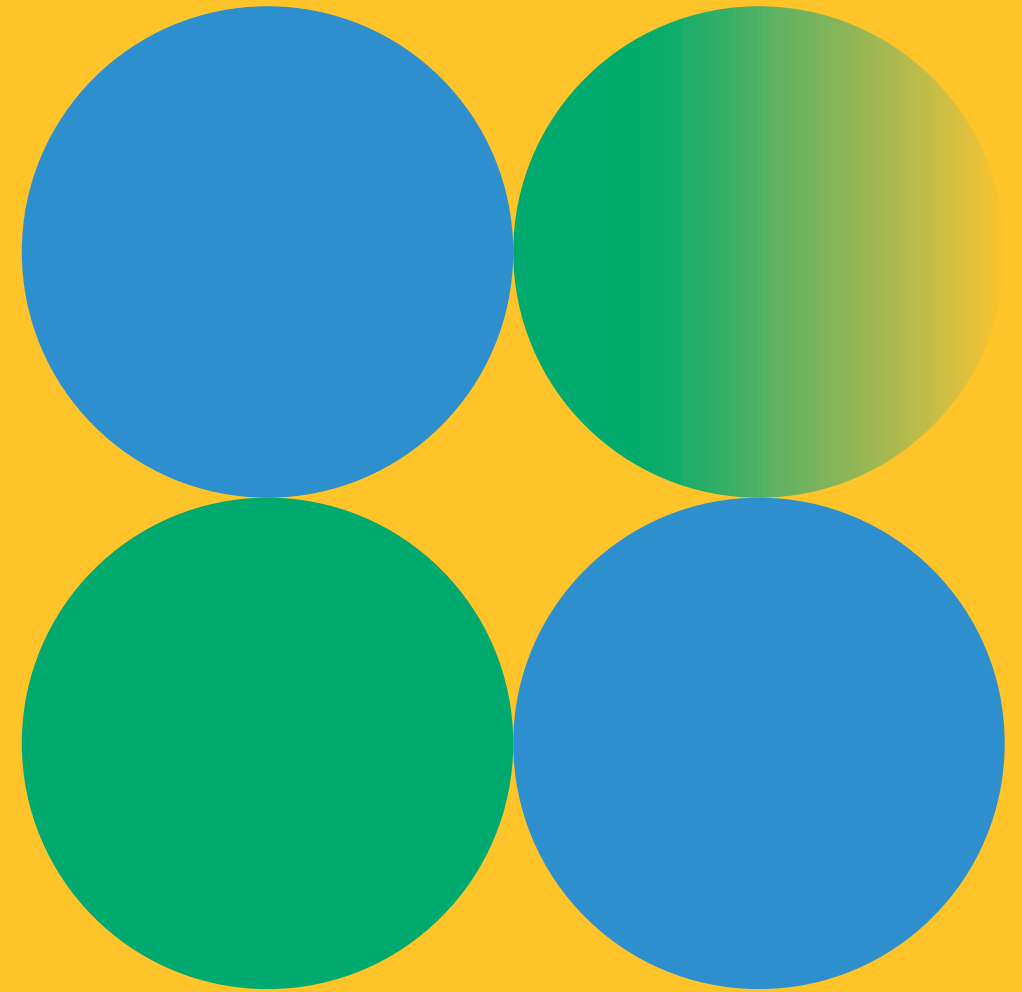
— L. Frank Baum, The Wonderful Wizard of Oz



다른 항로를 걷던 대학과
시민이 한 바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CHAPTER. 3

연결



모비딕처럼 바다를
건너 만나다

서울마이칼리지 성과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는 통합 운영체계를 정비해 대학 단독 참여 방식으로 운영의 책임성과 품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7개 대학이 직업 탐색과 실무 역량 중심 과정을 운영하며 총 4,524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성과 공유를 통해 다음 해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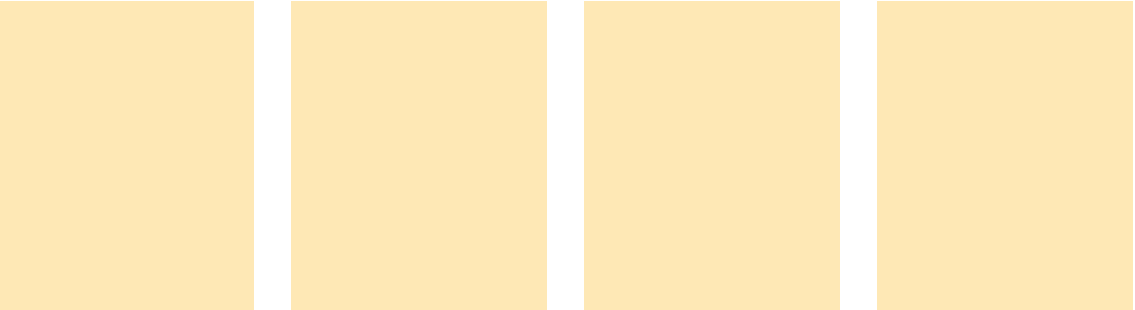
- 사업명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
- 사업기간 2025년 3월~12월
- 사업대상 서울시민(생활권자 포함)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운영대학(기관) 선정
- 사업내용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역량강화 과정 개발·운영
- 운영방법 대면(오프라인),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병행
- 추진실적 17개 대학 182개 강좌(771회) 운영, 참여자 4,524명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만족도
182	771	2,019시간	4,524명	83.6%	4.6 (5점)



특정 분야 자격역량 증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그리 214명 취득
- 마이크로·나노디그리를 발급받은 수료자는 추후 해당 대학 입학시 선수학점 인정

연번	구분	디그리명	강좌명	강의시간	학점	발급인원
1	명지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개발 및 실무역량 강화	30시간	2학점	37명
2		AI활용 디지털 마케팅	생성형 AI활용 현장 밀착형 디지털 마케팅 과정	30시간	2학점	
3		연결과 소통	연결과 소통을 위한 미술심리치료	30시간	2학점	
4			쏘잉디자이너 양성과정	15시간	1학점	
5			이미지컨설턴트 교육과정	15시간	1학점	
6	명지전문대	디지털 패션&스타일링 전문가 나노디그리	PCCS 자격 취득과정	30시간	2학점	80명
7			미용 경락 테라피스트 자격취득과정	15시간	1학점	
8			패션 컨설턴트 재직자 역량강화교육과정	30시간	2학점	
9			뷰티·패션 ESG 업사이클링 특강	15시간	1학점	
10			디지털패션&스타일링전문가 마이크로디그리	운영과정 중 3학점 이상 (45시간이상)수료자대상발급	45시간	
11	성신여대	조향전문가	조향사 과정	45시간	3학점	81명
12		향기테라피(A)	향기테라피스트 A 과정	45시간	3학점	
13		향기공방창업	향기공방 창업과정	45시간	3학점	
14		향기테라피(B)	향기테라피스트 B 과정	30시간	2학점	
15	서울시립대	세무회계실무 나노디그리	기업경영을 위한 회계의 이해	45시간	3학점	16명
16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에 대한 이해	45시간	3학점	
17		데이터분석 실무 나노디그리	데이터분석 입문자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45시간	3학점	
18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위한 데이터과학의 기초와 실제 구현	30시간	2학점	
합계						214명



명지대 마이크로디그리 명지전문대 나노디그리 성신여대 마이크로디그리 서울시립대 마이크로디그리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민간자격증 총 237명 취득

연번	구분	자격증명	취득자수	대학별 합계
1	경기대	관광통역안내사	2	2
		국내여행안내사 필기합격 11명(진행중)		
2	명지전문대	소잉클래스 3급	1	39
3		발관리 지도사 1급	6	
4		샵마스터 3급	14	
5		패션스타일리스트	17	
6	삼육대	웰다잉강사지도사(2급)	23	43
7		생태전환교육협력강사(2급)	20	
8	서울교대	AI인공지능&윤리교육지도사	9	26
9		그림책교육전문지도사	17	
10	서울여대	바롬인성지도사 초급(3급)	7	37
11		실버레크리에이션지인터넷윤리지도사 지도사	30	
12	서일대	SNS홍보 마케팅 전문가(2급)	2	12
13		디지털융합 크리에이터 전문 지도사(2급)	3	
14		인공지능(AI)콘텐츠 전문가(2급)	7	
15	인덕대	관광바리스타 자격증(2급)	13	34
16		토파스 항공예약 (2급)	9	
17		여행상품상담사자격증(2급)	12	
18	총신대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자(1급)	22	45
19		제론테크플래너(2급)	23	
합계			237명	

인문·교양으로 확장된 배움: 구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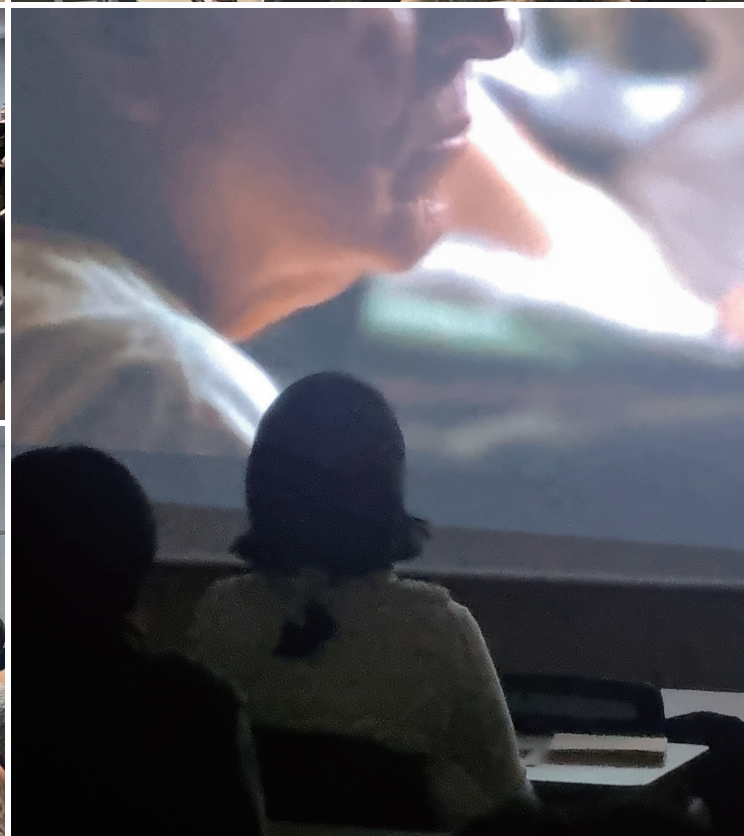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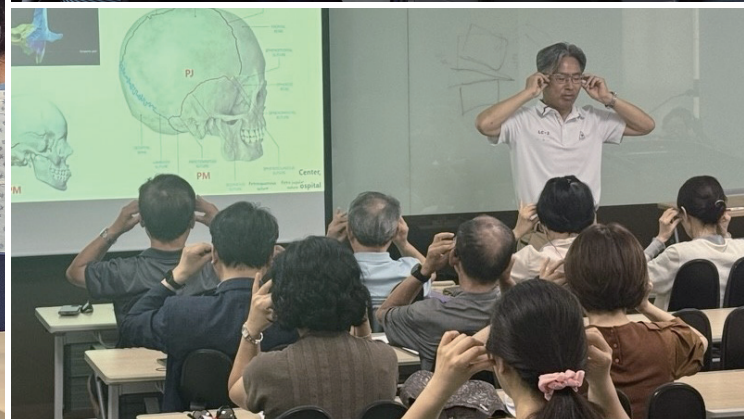
구독대학은 서울마이칼리지가 직업 탐색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흐름 속에서도, 시민이 꾸준히 요청해 온 인문과 교양 학습을 함께 담기 위해 운영합니다. 일과 연결되는 배움 못지않게, 삶을 정리하고 시야를 넓히는 배움이 중장년에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구독대학’이라는 이름은 한 번의 참여로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관심 주제를 따라 꾸준히 이어 듣는 학습 방식을 뜻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참여하고, 다음 강좌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도록 구성해 학습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운영은 대학 강의를 시민의 생활권에 더 가까이 두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부담 없이 참여해 새로운 주제를 경험하고, 강의 안에서는 질문과 대화가 활발히 오가며 참여자 간 경험 공유가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운영합니다. 구독대학은 서울마이칼리지의 학습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맡습니다. 직업 중심 과정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인문과 교양 영역을 보완해, 시민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맞춰 배움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강좌수	회차	강의시간	참여인원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만족도
15	75	150시간	450명	74.9%	4.8 (5점)

대학	강좌명
1 건국대학교	문학심리분석상담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자기서사 분석
2 건국대학교	문학치료 상담 기법 훈련: 서사지도와 열린질문법
3 경희대학교	생활 속의 한의학: 한방 건강관리
4 경희대학교	한의학 임상특강 1: 뇌 건강 및 한방 맞춤 건강 관리
5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읽는 사르트르의 『구토』
6 고려대학교	지지부지(知之不知) 조선 사람
7 서울대학교	조선 후기를 빛낸 화가들
8 성균관대학교	삶의 지혜와 도전의 철학으로서 동양고전
9 성균관대학교	예술인문학(Arts and Humanities)
10 연세대학교	역사와 용어로 알아보는 반도체 이야기
11 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 명저 읽기 시즌 1 -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읽기
12 중앙대학교	디지털 네이티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부모 생활
13 한국성서대학교	유대경전 ‘타나크’로 바라보는 현대 사회
14 홍익대학교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술 이야기
15 홍익대학교	색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색채심리의 이해)



네트워킹 기록

네트워킹 기록은 기관장부터 실무자까지, '운영의 언어'를 맞춰가는 과정을 담습니다. 기관장 간담회는 기준을 세우고, 브릿지데이는 현장을 연결하며, 대학평생교육포럼은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과제를 정리합니다. 만남이 논의로, 논의가 협력으로 이어진 흐름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기관장 간담회

기관장 간담회는 대학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품질과 책임을 기관 차원에서 함께 세우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모이는 자리입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같은 사업 안에서도 기준과 방식의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기관장 간담회는 이 차이가 '다양성'에 머물지 않고 '품질 격차'로 번지지 않도록, 운영의 공통 원칙과 책임 범위를 기관 차원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반복 수강 부적응, 노쇼 등 수강자 관리 이슈는 단순 제한으로 해결하기보다 수업 품질과 참여 문화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참여 문턱과 책임감의 균형을 함께 논의합니다.

대학 평생교육 조직의 운영 한계와 지속 가능성, 서울평생학습포털 모집 과정에서의 운영 부담을 함께 점검해, 각 대학의 고민을 공통 과제로 끌어올리고 협력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 합의는 실무자 브릿지데이와 대학평생교육포럼으로 이어지며, 현장의 실행과 협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간 협력 흐름을 잡는 기반이 됩니다.



실무자 브릿지데이
(Bridge Day)

브릿지데이는 참여대학 실무자들이 모여 운영의 고민을 나누고, 협력의 답을 함께 찾는 교류의 장입니다. 브릿지데이에서는 각 대학이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편하게 꺼내 놓고, 서로의 운영 방식과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나눕니다. 학습자 민원 대응, 행정 절차, 예산과 인력 운용처럼 실무에서 바로 부딪히는 이슈를 사례로 다루며, “우리도 비슷하다”는 공감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교류가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2025년 9월 24일 KT&G 상상플래닛(성수동)에서 17개 참여대학 실무자와 내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학별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방식을 함께 살핍니다. 토의 시간에는 공통 과제를 확인하고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지점과 차별화 방향을 함께 찾으며, 마지막에는 대학별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한 주제를 정리합니다. 행사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지도록 후속 소통 기반을 마련합니다.

대학평생교육포럼

대학 평생교육 포럼은 AI 시대 변화에 맞춰 대학 평생교육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서울마이칼리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대학 평생교육 포럼은 서울마이칼리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평생교육이 지금 무엇에 응답해야 하는지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를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기술과 일의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의 배움이 단기 참여로 끝나지 않도록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현장과 정책의 시선을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합니다. 포럼은 기초강연과 특별강연을 통해 대학 평생교육의 큰 방향을 짚고, 성과발표로 서울마이칼리지의 결과를 근거로 남깁니다. 이어 참여대학 사례발표를 통해 인증형 모델, 생활권 기반 운영, 신중년 대상 과정처럼 현장에서 검증된 운영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공유합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과 기관이 함께 가져갈 공통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정리해, 만남이 논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합니다.

대학과 시민이
함께 만든
변화의 메시지



은퇴 이후의 꿈,
한국을 안내하는 일로 이어지다



배화여자대학교는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의 제작 역량을 키우고, 창작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흐름을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인형한복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50대 여성 수강생은 배움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해당 수강생은 수업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전통인형 한복의 제작 과정과 표현 기법을 꾸준히 익혔습니다. 학습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인형한복 공방을 새롭게 운영하며, 다른 지역민과 함께 소규모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하며, 배움이 창작의 기쁨으로 이어진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과정은 배움이 창작과 지역 활동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설비점검부터 문서까지, 소방 실무 완주



김OO 시민은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던 중, 동양미래대학교 ‘소방안전관리 실무과정: 설비점검부터 문서작성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론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익히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은 소방 설비를 직접 점검해보는 실습과 점검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절차를 함께 다루며, 실무의 흐름을 한 번에 따라가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대학이 갖춘 소방 설비 실습 시설을 활용해 실제 장비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김OO 시민은 실습 과정에서 높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김OO 시민은 “수업이 5차시로 끝나는 점이 아쉬웠다”며, 다음에는 차시가 확대되어 더 깊게 실습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번 과정은 소방 업무의 핵심인 점검과 기록을 실제로 경험하며, 중장년의 직업 탐색에 필요한 실무 감각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한 땀의 배움이 전시가 되고, 공방이 되기까지



배화여자대학교는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의 제작 역량을 키우고, 창작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흐름을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인형한복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50대 여성 수강생은 배움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해당 수강생은 수업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전통인형 한복의 제작 과정과 표현 기법을 꾸준히 익혔습니다. 학습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인형한복 공방을 새롭게 운영하며, 다른 지역민과 함께 소규모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하며, 배움이 창작의 기쁨으로 이어진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과정은 배움이 창작과 지역 활동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림이 상품이 되는 순간, 첫 판매를 열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20대 수강생 김OO 시민은 드로잉에 관심과 재능이 있었지만, 디지털 도구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실제 판매까지 연결하는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서일대학교 ‘디지털드로잉으로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과정에 참여한 이유도 “그릴 줄 아는 것”을 “팔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였습니다.

교육에서는 AI 드로잉 도구 활용부터 온라인 굿즈 판매 절차까지 실습 중심으로 다뤘고, 수강생은 강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본인 작업의 보완점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강의 종료 후에는 직접 제작한 디자인으로 스티커 상품 등록에 도전했고, 라인 플랫폼 심사를 통과해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학습이 제작으로, 제작이 실제 판매로 이어지며 성과가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감으로 하던 커피가 기술이 되다



세종대학교는 서울마이컬리지 협업사업으로 ‘바리스타 심화 & 라떼아트 과정’을 운영해, 커피 실무 경험이 있는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쓰는 고급 기술과 메뉴 운영 감각을 익히도록 지원했습니다.

김OO 시민은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기초 수준에 머물러 실무 감각을 체계적으로 다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과정 참여 이후 원두 특성과 추출 방식, 우유 스티밍, 라떼아트 실습을 단계적으로 익히며 ‘감’에 의존하던 작업을 기준과 원리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라떼아트를 선보이는 시연을 통해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 상황을 가정한 연습까지 경험했습니다.

김OO 시민은 “그동안 감으로만 하던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게 됐고, 커피를 더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종대학교 과정은 기술을 ‘해보는 수준’에서 ‘현장에서 구현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실무형 학습 사례였습니다.

자격 취득이 취업으로 이어진
여행 실무 과정



최OO 시민은 인덕대학교 ‘중장년 맞춤형 문화 산업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가운데 ‘여행상품상담사 과정’을 수강하며 여행상품상담사 2급, 관광바리스타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여행카페에 취업해, 수업에서 쌓은 역량과 취득 자격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 최OO, 김OO, 이OO, 이OO 등은 민간 여행사에 프리랜서로 취업했으며,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검토 중입니다. 인덕대학교 과정은 자격 취득을 목표로 끝내지 않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한 우수사례입니다.

아이디어가
기획서가 되기까지



김OO 시민은 창업을 준비하며 막연한 결심을 계획으로 바꾸고자, 한양대학교 ‘중장년의 인생 2막, 커리어 역량 강화-UP’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본교 정규 강좌 7개 중 4개 강좌를 수강하며,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해낼지”를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타트업 인사이트: 창업 생태계의 이해와 실전 전략’을 수료하며 창업 생태계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현실 노동 수업’을 통해 노동 시장 구조와 일자리 환경을 분석하며, 내가 설 자리를 현실 위에서 다시 그려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을 위한 인스타그램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실전 과정’에서 SNS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을 실습하며, 아이디어가 사람을 만나도록 만드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새로운 업(業): 디지털 리터러시와 실천적 글쓰기’ 과정을 수료하며 앞선 학습을 창업 기획서 작성으로 연결해 실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OO 시민은 “체계적인 강좌 구성도 그렇고, 전문성을 갖춘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가 정말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과정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흩어지지 않도록 순서를 세워 주고, 끝내 기획서라는 형태로 남게 한 학습의 흐름이었습니다.

64세의 첫 AI, 두려움이 자신감이 되기까지

이미지 재요청

이OO 시민(64세)은 한양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생성형 AI 활용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수강했습니다. AI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울 곳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던 중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개강 전날에는 “수업에 폐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 잠을 설칠 만큼 부담이 있었고, 컴퓨터 활용과 타자 속도에 대한 불안도 컸습니다.

수업은 첫 시간부터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강의는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진행됐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학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OO 시민은 이미지 생성 AI 도구를 활용해 설명만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며 “요술방망이 같다”고 표현했고, AI로 만든 문장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며 배움을 생활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ChatGPT를 활용해 엑셀 함수 정리, 글 정리, 유튜브 대본 작성까지 직접 해보며 “나도 AI를 쓴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OO 시민은 이번 과정이 자신 같은 사람에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준 수업이었다고 전하며, 참여를 고민하는 중장년에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색과 형태로 마음을 풀고, 관계를 다시 잇다



명지대학교 ‘연결과 소통을 위한 미술심리치료’ 과정에 참여한 김OO 시민은 웰다잉(Well-Dying) 강사로 활동하며 삶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던 중, ‘미술을 통한 심리 치유’라는 접근에 이끌려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색과 형태로 드러나고, 작업 과정에서 내면의 결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참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기본 흐름을 잡은 뒤, 실습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개인 작업과 단체 작업을 균형 있게 경험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개인 작업은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었고, 단체 작업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감정 반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업 후 발표 시간에는 결과물을 평가하기보다, 작품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참여자 간 공감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김OO 시민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을 미술이라는 매개로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으며, 이후 성과공유회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체계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지대학교 과정은 자기 이해와 정서적 회복이 ‘소통’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통해, 시민의 마음 건강과 관계 회복에 기여한 사례였습니다.

자격증 2개와 Micro-Degree로 확인한 성장,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명지전문대학교 ‘패션컨설턴트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참여한 김OO 시민은 고객 응대와 스타일링 제안 역량을 더 단단히 다지고 싶어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교육에서는 패션 상품 이해, 고객 유형별 상담 방식, 최신 트렌드 분석 등 현장에서 바로 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됐고, 수강생은 이를 자격 준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김OO 시민은 과정 참여를 계기로 샵마스터 3급과 패션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Micro-Degree까지 함께 이수했습니다. “40대 후반에 이룬 성과라 더 뿌듯했다. 20대 전공자들과 소통하며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명지전문대학교 과정은 재직자의 실무 역량을 자격 취득과 학습 인증으로 확장하며, 배움의 결과가 분명히 남도록 지원한 사례였습니다.

배움을 지역으로 돌려주다,
향기로 확장된 사회공헌 활동



성신여자대학교는 「향기테라피 커리어 UP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규과정 수료생 중 81명이 Micro-Degree 과정을 수료하도록 지원하고, 학습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지역축제 참여, 재능기부, 기부활동 등으로 배움을 나누며 활동 역량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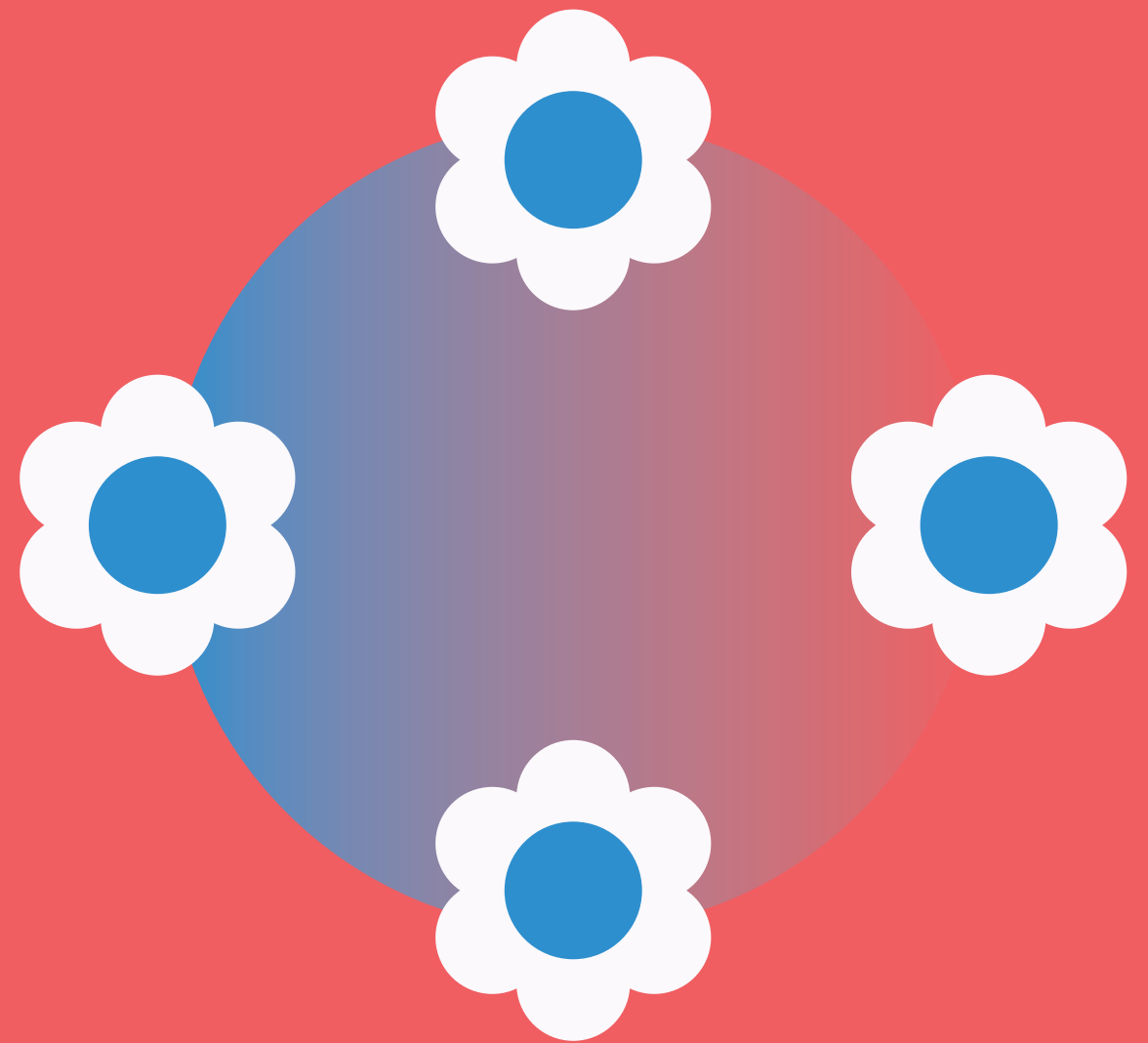
특히 수료생들은 성북구청 주최 「2025년 성북 청년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해 ‘청년 힐링 향기테라피 조향 체험’ 부스를 직접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수료생이 조향 실습 강사로 참여해 15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아로마 에센셜오일 블렌딩을 안내하고, 석고 방향제 제작 체험을 운영하며 학습 성과가 현장 체험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은 정규과정 실습으로 직접 제작한 조향 제품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전달하며, “지원으로 받은 배움의 기회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사례는 학습 인증을 넘어, 학습자가 지역 현장에서 직접 ‘나누는 역할’로 성장한 우수사례였습니다.

바다는 멀지만, 대학과 시민의 항해는 계속된다.
협력은 더 큰 물결이 된다

CHAPTER. 4

미래



노인과 바다처럼
끝까지 항해한다

참여대학 안내

2026년 서울마이칼리지가 규모를 넓히는 동시에, 현장 연결과 성과 관리까지 함께 강화하는 확장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학의 교육이 기업과 기관의 실제 과제, 시민의 다음 선택과 맞닿도록 협력 구조를 키우고, 참여가 늘어나도 운영 품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통 기준과 점검 체계를 함께 갖춥니다.

또한 서울마이칼리지와 구독대학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나뉘, 시민이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흐름을 정리합니다.

산학 연계, 기업, 기관 협력 방향

2026년에는 협력을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과정 설계의 기본 조건으로 둡니다.

현장 수요가 있는 주제는 과제를 먼저 정하고 과정이 따라가게 하며, 과정이 끝나면 결과가 남고 다음 경로가 열리도록 연결 고리를 촘촘히 만듭니다.

구독대학은 직업 과정과 다른 결의 학습을 책임지는 축으로 두고, 시민의 인문, 교양 수요가 끊기지 않도록 편성과 운영 방식을 안정화합니다.

확장 방향

서울마이칼리지는 시민의 일과 생활에 바로 닿는 실습을 늘리고, 기업과 기관의 과제와 연결되는 과정 비중을 확대합니다.

구독대학은 직업 중심 과정에서 다 담기 어려운 인문, 교양 영역을 채우며, 시민이 관심 주제를 따라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 수강 흐름을 강화합니다.

두 사업은 역할이 다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오늘 듣고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만납니다.

서울마이칼리지 고도화 포인트

- 현장 과제 연계 확대: 기업, 기관, 유관 조직이 가진 실제 과제를 협력 주제로 설정하고, 과정 안에서 문제 정의, 기획, 실행, 결과 공유까지 이어지도록 운영
- 프로젝트형 과정 확대: 단순 강의형을 줄이고 팀 과제, 실습, 현장 적용이 포함된 과정 편성 확대, 결과물은 기획서, 시안, 분석 보고서, 운영안 등 “제출 가능한 형태”로 남기도록 설계
- 후속 경로 강화: 과정 기획 단계부터 채용, 전직, 창업, 현장 활동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명시하고, 협력 기관과 연계 방식(멘토링, 현장 견학, 과제 제공, 실무자 특강 등)을 사전에 확정
- 공통 운영 기준 강화: 참여 대학 간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과정 운영 체크리스트, 민원 대응 기준, 출결과 수료 기준, 결과물 제출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
- 운영 부담 경감: 모집, 안내, 운영에서 반복되는 절차를 공통 양식과 도구로 단순화하고, 대학이 교육 품질과 실습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정리

구독대학 운영 정비 포인트

- 주제 편성의 기준 명확화: 시민 수요가 높은 인문, 교양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주제 축을 먼저 세우고 강좌를 배치해 흐름이 보이도록 구성
- 이어 듣기 구조 강화: 입문, 심화, 확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강좌 간 연결을 설계하고, 추천 경로 안내를 통해 단발 참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
- 서울마이칼리지와 역할 구분 명확화: 서울마이칼리지는 직업 탐색과 역량 강화, 구독대학은 인문과 교양 확장으로 기능을 구분해 시민의 선택 혼선을 줄이고, 홍보 문구와 안내 체계도 각각 분리 운영

운영 원칙

- 실수요 중심 기획 원칙 적용
- 행사성 단발 운영 지양, 과정 안에 실습과 결과물 도출 포함 원칙 적용
- 참여 실적 중심 관리에서 결과물, 후속 사례, 확산 가능성 중심 관리로 전환

성과 관리 방향

이 장에서 말하는 확장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무엇이 실제로 남았는가”로 확인합니다.

협력 기관 참여, 과제 연계, 프로젝트 결과물, 그리고 취업, 전직, 창업, 현장 활동으로 이어진 후속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 관리 항목을 정교화하고, 과정별로 결과가 축적되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합니다.

다음 챕터를 향하다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부서질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 Ernest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서울마이칼리지가 2025년에 확인한 것도 결국 이 마음입니다. 낯선 기술 앞에서, 새로운 일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 앞에서 시민은 멈추지 않고 배움 쪽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대학은 그 발걸음이 헛디디지 않도록 공간과 전문성, 실습과 상담, 인증과 연계를 내어줍니다.

이 성과집이 남기는 기록은 ‘무엇을 했다’의 목록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해졌다’의 변화입니다. 한 번의 수강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기고, 혼자였던 질문이 함께 풀어보는 과제가 되며, 배움이 생활과 일에 닿는 장면이 늘어납니다.

“2026년의 확장은 더 크고, 더 제대로입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산학협력으로 현장 과제와 후속 경로를 더 넓게 연결해 학습의 폭을 확장하고, 동시에 과정 설계와 운영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참여가 늘어도 품질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구독대학은 시민이 오래 요청해 온 인문과 교양의 갈증을 안정적으로 채우며, 지속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의 흐름을 다듬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배움이 각자 역할을 선명히 하면서도, 시민의 하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기준과 도구를 정비합니다.”

바다는 늘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바뀌듯, 시민의 삶도 해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다시 출항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힘입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오늘의 질문을 내일의 선택으로 바꾸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서울마이칼리지 운영성과집 2024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편집인	대학협력사업팀장 박미경
	대학협력사업팀 이다운